



광양의 문화사랑방... 시민들은 행복해

광양제철 백운아트홀



일년내내 다양한 공연·전시
‘명랑’ 등 영화 상영도 인기
수준높은 문화예술 향유

광양의 대표 문화공간인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백운 아트홀이 다양한 공연과 문화행사를 잇달아 열어 주목받고 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그동안 다양한 문화행사를 기획해 포스코 직원과 지역민에게 즐거운 시간을 제공했다.

광양제철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일과 삶의 균형 발전을 위해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한 데 발맞춰 수준높은 문화행사로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를 충족시켜 왔다.

특히 지역민에 다양한 문화를 접하도록 영화 상영과 공연 문화를 더욱 늘리고 있다. 사진전시 및 강좌, 사내 동호회를 주축으로 구성된 색소폰·통기타 연주와 그림·서예·사진전시 등 다양한 공연과 전시를 선보이고 있다.



백운아트홀은 1100석의 대공연장과 200석 규모의 소공연장 2개를 갖추고 연 50여회의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시민들에게 오케스트라 선율 선사=올 여름 독일 관악 대포 오케스트라 연주자들로 구성된 ‘독일 작센 유스 윈드 오케스트라’ 공연은 바쁜 일상에 지친 시민들에게 슈베르트, 바그너 등의 명곡을 선사했다. 부드러운 오케스트라 선율을 통해 치유와 화합의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또 지난 8월 여름방학을 맞아 무대에 올린 년별 퍼포먼스(Nonverbal Performance=말없이 춤으로만 표현하는 공연) ‘비밥’(BIBAP) 공연은 백운아트홀을 가득 채운 부모와 어린이들의 뜨거운 감동을 받았다.

‘비밥’ 공연은 한국 비빔밥, 일본 스시, 이탈리아 피자 등 각 나라를 상징하는 음식을 만들 때 나는 소리를 비트박스나 비보잉 등의 장르로 새롭게 표현했다. 익숙한 것을 새롭게 만드는 변화와 혁신이라는 테마가 특징적이며 재미와 감동을 더했다.

내용은 세계 최고의 셰프 자리를 걸고 펼치는 요리 대결을 다루고, 현란한 비보잉과 역동적인 ‘마살 아츠’(martial arts=동양에서 전래된 종합무술)로 시종일관

흥겹게 관람객을 사로잡았다.

지난 추석 연휴에도 고향을 찾은 많은 시민들을 위해 두 편의 영화를 교차 상영했다.

또 광양제철은 다양한 장르의 작품 전시로 지역 문화 예술을 선도하기 위해 새롭게 조명받고 있는 장르인 ‘캘리그래피’(Calligraphy) 전시회가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열었다. 캘리그래피는 ‘아름다운 서체’라는 뜻으로 글자로 표현하는 예술 장르를 말하는데 이번에는 작품 전시회 그치지 않고 캘리그래피 시연도 진행됐다.

관람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새로운 예술 장르인 캘리그래피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순천 ‘캘리디자인 숲’ 관계자들이 직접 전시장에서 무료로 가훈과 좌우명 등 관람객 요청 문구를 제작해 줬다.

◇영화 ‘명랑’ 광양만에서 70% 촬영=또 앞서 각종 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영화 ‘명랑’ 상영회가 지난달 13일 많은 관심 속에 백운 아트홀에서 열리기도 했다.

영화 ‘명랑’은 광양시와 인연이 깊다. 광양항에 초대형 세트장을 세워 해상 전투장

면을 촬영했고, 광양만 바다에서 70%의 촬영이 이뤄졌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제6회 대한민국 대학 국악제’가 다음달 10일 백운아트홀에서 열린다. 이달 중 서을 등지에서 예선을 거쳐 10개 본선 진출팀이 4900만원의 상금을 놓고 실력을 겨루게 된다.

이 밖에도 올 하반기 광양과 포항에서 인기가수 공연을 기획하고 있으며, 송년 콘서트와 작품 전시회, 각종 영화상영을 준비하고 있다.

광양제철 서재석 행정집의그룹장은 “앞으로 새롭게 준비한 영화상영 프로그램으로 지역민들에게 유익한 시간을 제공할 것”이라며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시민들이 수준 높은 문화를 향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92년 문을 연 백운 아트홀은 1100석 대공연장과 200석 규모의 소공연장 2개, 전시, 연습, 분장실 등을 갖추고 있다. 연 50여 회의 문화예술 행사가 열리고 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중국 투자시찰단 광양만권 산업시찰



중국 기업인 투자시찰단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하부 청장)의 초청으로 최근 1박2일간 광양만권을 산업 시찰했다. <사진>

중국 창투 왕따밍 회장을 단장으로 한 중국 기업인 투자시찰단 6명은 광양만권 경제청의 중국 현지 투자설명회와 기업방문을 통해 발굴한 베이징, 광저우, 선전지역 잠재 투자기업 및 경제단체 관계자들로, 광양만권의 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에 투자의향을 표명한 바 있다. 이들은 여수시 화양지구를 비롯해 광

양항, 울손산단 등을 둘러보며 기업 경영환경 외에 항만시설과 산업용지 공급 계획 등 산업 인프라에도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이회봉 청장은 “최근 세계적인 경기 침체 속에서 중국 투자자들이 한국과 중국기업의 장점을 활용한 합작기업 설립과 투자를 새로운 경영전략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이번 산업시찰로 여수 화양지구가 관광·레저개발 분야 전략적 투자 유망지역으로서 주목받았다”고 말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광양경제청 전직원 투자유치 요원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전 직원의 투자유치 요원화를 통해 투자유치 실적을 최대한 끌어올린다.

광양 경제청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세월호’ 등으로 인해 국내 경제상황이 어려워짐에 따라 투자유치로 위기를 극복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광양경제청은 직원들과 투자유치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투자유치 활성화와 조직업무 개선을 위한 전직원 동참 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광양 경제청은 전직원의 투자유치 요원화와 함께 조직 지원능력 제고를 위해 위기대응팀, 제도개선팀, 법령해석팀 등 각종 TF팀을 운영하고 사책보고회를 수시로 열어 목표달성 전략을 재정립해 나갈 계획이다.

신태욱 투자유치본부장은 “올 8월말 현재 22개 기업 4억8000만 달러의 투자유치 실적을 올렸으나, 12월 말까지 최소 12억달러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오늘 ‘제1회 광양만권 인적자원개발 컨퍼런스’ 개최

(사)광양만권 HRD센터(이사장 서재연)는 12일 오전 10시 광양을 필두로 호 텔에서 ‘제1회 광양만권 HRD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제7세대 HRD(인적자원개발) 트랜드와 창조경영’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창조경영과 일자리 ▲제7세대 HRD트랜드 ▲공간을 넘어 감동경영 등 3가지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창조경영과 일자리’ 세션은 마케팅 라인 대표 석성훈 교수, 국가미래창조경제기획단장 김수동 박사, 보로로 캐릭터 개발자 (주)아이코닉스 최종일 대표가 맡

아 보로로 캐릭터 개발 및이야기 등 생동감 넘치는 특강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7세대 HRD트랜드’ 세션은 KT&G 홍석환 상무, (주)POP 컨설팅 김남민 대표, 구루피플스 이창준 대표가 맡아 HRD의 세계적 트랜드 등에 관한 알찬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공간을 넘어 감동경영’ 세션은 (주)미 래경력개발원 신상진 대표, 케이디파워 박기주 대표, (주)코글로닷컴 이금룡 회장의 스마트 시대의 감성 리더십에 대한 특강이 준비돼 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김장훈 콘서트



비밥 공연



패티김 콘서트



포에버윈드 오케스트라 공연

정부 조달물자계약 업체

모든 가구가 한곳에!



(주)엔에스퍼니처 광양지사

T (061)793-7704 H 010-3114-3063
웹하드 ID : gane82 / PW : 1111
광양시 중앙로 494-1 (마동정수장 옆)

가치와 사람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회사 사회와 함께하는 회사

저희 법인은 기존의 보상 및 담보평가는 물론이고 부동산투자자문, 개발타당성분석, 기업가치 및 부동산 증권화에 수반된 평가 등을 수행할 수 있는 해당분야의 전문 감정평가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전문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위하여 가람평가연구원을 부설기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등의 전문가자격자와 학계의 저명한 교수들과도 NET-WORK를 구성하고 있으며, 국내외의 금융기관 및 부동산회사들과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지정 대량감정평가 법인
자산재평가 전담팀 운영
공정 가치평가본부 02-2051-2800

(주)가람감정평가법인 호남지사 T.(061)375-6540 F.(061)375-6542